

6주차 | 학습목차



<b>학습목차</b>	<b>01. '개척단' 조직과 운영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부랑인 단속과 '개척단' 동원</li> <li>• 개간, 간척 노동</li> <li>• 감시와 구타</li> </ul>	<b>04. 떠난 사람들과 정착한 사람들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서산 개척단의 해산</li> <li>• 장흥의 농지 분배 후 떠난 사람들</li> <li>• 정착한 사람들과 현재</li> </ul>	
<b>학습목표</b>	<b>02. '개척단'의 합동 결혼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합동 결혼 추진</li> <li>• 실제 결혼 생활과 그 이후</li> <li>• 구술 일화</li> </ul>	<b>05. 납북귀환 어부 사건의 배경과 국가폭력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납북귀환 어부란?</li> <li>• 사건의 배경</li> <li>• 연행</li> <li>• 강제 심문</li> <li>• 불법 구금, 고문 및 구타</li> </ul>	
<b>학습내용</b>	<b>03. '개척단'의 농지 분배와 이주/정착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농지조성 현황</li> <li>• 장흥과 서산의 농지 분배 차이</li> <li>• 서산 정착민의 요구와 정부의 책임</li> </ul>	<b>06. 납북귀환 어부 사건의 장기적 피해와 '연좌제'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감시로 인한 일상의 파괴</li> <li>• 지역에서의 고립</li> <li>• 연좌제로 인한 자녀, 친척의 취업 및 해외이주 제한</li> <li>• 가정(家長)의 피해와 그로 인한 빈곤</li> <li>• 최근의 상황</li> </ul>	

6주차 |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



## 2차시

# '개척단'의 합동 결혼

6주차 | 학습목표

2차시. '개척단'의 합동 결혼



<b>학습목차</b>	
<b>학습목표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개척단을 농촌에 정착시키려고 한 시도를 파악할 수 있다.</li> <li>■ 개척단의 인권 침해 사례와 정착을 시키려는 시도의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.</li> <li>■ 구술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구술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.</li> </ul>
<b>학습내용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개척단을 농촌에 정착시키려고 한 합동 결혼 추진 과정과 실제 경험</li> <li>■ 구술 준비 과정 중 질문지 사전 제공 문제</li> </ul>



## 합동 결혼 추진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2차시 '개척단'의 합동 결혼



## 합동 결혼 추진

- 남성을 어떻게 농촌에 정착시킬까?  
→ 결혼 추진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2차시 '개척단'의 합동 결혼



## 합동 결혼 추진

- 여성들은 어디에서 왔을까?
  - 도시의 시설(부녀보호소) 수용
  - 취업 사기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2차시 '개척단'의 합동 결혼



## 합동 결혼 추진

- 결혼식 보도  
([대한뉴스 제438호, 1963.10.12](#))



[출처01] 충청남도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2차시 '개척단'의 합동 결혼



## 합동 결혼 추진

- 결혼식 보도  
“충청남도 서산군 모월리에 있는 대한청소년 개척단 광장에서 125쌍의 합동결혼식이 있었습니다. 이들은 지난날 가족을 잃고 의지할 수 없었던 부랑 청년들과 윤락의 함정에서 헤매던 불우한 여성들로서 자립 자활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곳 정부가 마련한 보금자리를 찾아 정주한 것입니다.”



[출처01] 충청남도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2차시 '개척단'의 합동 결혼



## 합동 결혼 추진

- 결혼식 보도로 알 수 있는 점
  - 남성, 여성이 자신의 의지로 개척단에 온 것처럼 보도
  - 정부가 개척단에 실제로 관여
    - 정부의 책임
  - 가족 없는 사람이 혜택을 본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음



[출처01] 충청남도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2차시 '개척단'의 합동 결혼



## 합동 결혼 추진

- “225쌍 합동결혼식, 여기서, 225쌍 합동결혼식, 125쌍 합동결혼식, 두 번 있었어. 125쌍 합동결혼식은 여기서 했고, 여기 운동장에서 하고, 225쌍은 서울 워커히에서 했어. 그것도 옛날에 윤치영 서울시장, 그 사람 주례 하에 했어. 그게 즉 말하자면, 순전히 전시 효과로. 버스가 말야, 서산 역사상 그렇게 많이 들어오긴 처음이여. 225쌍을 싣고 갈려니께. 도로가 있나? 우리가 그거 버스 오기 전에 도로 내느라고 얼마나 혼났는 줄 알아?”

[출처02] 극사관찬위원회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2차시 '개척단'의 합동 결혼



## 합동 결혼 추진

- 서울 225쌍 합동결혼식
  - 서울시장이 주례



[출처03] 충청남도

## 실제 결혼 생활과 그 이후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2차시 '개척단'의 합동 결혼



## 실제 결혼 생활과 그 이후

- “대외적으론 다 누구하고 결혼해라 누구하고 결혼해라, 몇 번 만나보고 이렇게 하라고, 내용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어.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. 그때는 뭐 배고파 죽겠는데 뭘 누구 여자 생각이고 남자 생각이여.”

[출처02] 국사편찬위원회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2차시 '개척단'의 합동 결혼



## 실제 결혼 생활과 그 이후

- 여성의 취업 사기, 강제 결혼, 감금 생활  
“여자들도 다 강제로 왔지. 그래서 배가 이렇게 불러서 있는데, 어느 날 시장 간다고 갔는데 안 오는겨. 외출증 끊어 갖고 갔는데.”

[출처02] 국사편찬위원회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2차시 '개척단'의 합동 결혼



## 실제 결혼 생활과 그 이후

- 여성들의 탈출 시도
- 1966년 조사 결과
  - 350쌍 중 45쌍은 완전히 헤어졌음
  - 40%는 결혼 생활이 불안한 상태  
‘성패반반’, “조선일보” 1966.10.5



## 구술 일화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2차시 '개척단'의 합동 결혼



## 구술 일화

- 서산 개척단 사전 면담 후 구술 거절
- 합동 결혼 후 가족 유지
  - 자녀들에게 알리지 않음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2차시 '개척단'의 합동 결혼



## 구술 일화

- 구체적인 질문지로 인한 거부감
- 구술 때문에 합동결혼 사실이 알려지길 거부
  - 구술자의 상황, 생각이 중요한 구술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2차시 '개척단'의 합동 결혼



## 학습정리

- 개척단에서 있었던 합동 결혼과 이후의 삶
- 질문지 사전 제공 등 구술에서 고려해야 할 점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2차시 '개척단'의 합동 결혼



## 다음 차시에서는

- 개척단 사람들의 삶과 이후 경험

SOURCES



[출처01] 충청남도  
<https://www.kogil.or.kr/recommend/recommendDivView.do?recommendIdx=37805&division=img>

[출처02] 국사편찬위원회 - 2012년도 수집 구술자료  
 한국 근현대 가족경험과 가족의 위치(부분공개) COH009\_06\_00A0007

[출처03] 충청남도  
<https://www.kogil.or.kr/recommend/recommendDivView.do?recommendIdx=37881&division=img>

SOURCES



e영상역사관  
<https://www.ehistory.go.kr/page/view/movie.jsp?srcgbn=KV&mediaid=344&mediadtI=4936&gbn=DH&quality=M>



기획·조정  
 이봉규·정다영

교안  
 이유정·윤승희

영상  
 김록현